



11일 봉황봉사단 회원들이 대구 전신컨설팅센터에서 경로잔치와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자원봉사회를 열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회원들은 창립 두돌을 맞아 보살행의 참된 실천을 다짐하며 사랑을 나누었다.

보살행 즐거움 1천회원 한마음

히 이날 자원봉사회에서 판매된 각종 상품들의 수익금은 대구, 고령, 성주, 달성, 청도 등에서 경로잔치와 봉사기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고 있는 동화사 사회국장 덕현 스님은 "비용을 줄여 한푼이라도 더 남을 뚝는데 쓰자는 의미에서 다른 행사에서는 일반화 되어있는 연예인 초청 공연이나 식사 등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0년 8월 창립된 봉황자원봉사단은 대구지역의 여러 자원봉사 단체들이 각자 주먹구구식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봉사가 분산되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거점 봉사단 구축과 점조직식 연락망으로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봉황자원봉사단의 자랑거리다.

봉황봉사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는 무료급식소 자비밥집, 회암의집, 관음의집 등에 자원봉사자 파견, 장애인 시설지원, 사할 행사지원, 사회복지기금 조성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말에는 각 복지단체나 장애인복지 등을 찾아가 김장을 담가주는 등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나눠왔다. 지난 여름에는 태풍 '루사'에 피해를 입은 김천 수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과 지역 소년소녀가장 지원에도 한 몫을 해 지역의 대표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욱이 동화사 교구총회에서 말사 주지스님에 대한 인사사고에 스님들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상황 여부도 포함하고, 본사에서 조성중인 포교기금의 용처에서도 봉사활동 지원에 일부본 사용키로 결의함에 따라 봉황자원봉사단은 확실한 지지기반 안에서 활발한 보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n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아름다운 마무리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 할 것인가. 연말을 맞은 사람들에게 던져진 화두다.

지난해 이맘 때, 고령의 나이에 불치병을 앓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향한 한 사람의 미담은 연말을 훈훈하게 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페리스 밀러라는 분명을 가진 귀화인 민병갈 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한국은행과 상용증권에서 일했던 52세의 민병갈씨는 2001년 1월 폐암 말기라는 선고 받은 후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태안 천리포수목원을 기구로 데 최선을 다해왔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곳에 더 많은 회

12월 회향의 달

- 회향은 실천의 완성
-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 아름다운 마무리
- 회향, 새로운 시작

정숙 씨. 그는 퇴직한 이후 전회상 담 봉사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자비의 전화와 능인복지관 상담실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해온지도 어언 10년. 탁씨는 자신이 교사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회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하단다.

속산학을 전공하고 경상대에서 교수생활을 했던 광복현 씨. 지식인 불자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사회에 회향하고자 고민했던 광씨는 99년 정년퇴임과 함께 송광사에서 관광객들에게 사찰과 자연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련회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자신이 세

나보다 큰 나 위하는 삶 세상 밝게해

묵묵한 실천 어떤 가르침보다 중요

망울 심어놓기 위함이었다. 민 씨가 40년동안 일구는 수목원은 사람들의 쉼터로,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청 재무국장과 구청 불자회인 불심회 회장을 역임한 박상현(64) 씨도 아름다운 회향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9년의 서예대 전 입상과 <소학필사교본> 등 10여권의 한문 서예 서적 발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당교실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퇴직 후 은평 천호노인복지관에서 한문과 서예를 가르친다.

서울교대의 전신인 서울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았던 박

이 무척 보람 있다"고 토로한다.

지난 8월 포곡사와 운수부, 부동산 등으로 모은 270억 상당의 재산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 강태원 씨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대신에 사회 환원을 선택했다. 폐업유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는 그의 간단한 소감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속적인 경험과 재산을 자신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 사회로 되돌린 이들의 묵묵한 실천은 어떤 가르침보다 고귀한 교훈이 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자신의 공덕을 사회에 회향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문보다 큰 교훈을 준다. 박상현 씨(왼쪽 두 번째)가 지난 여름 은평노인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서예와 한문을 가르치는 장면.

바라밀현장

조계종 9교구 '봉황봉사단'
조계종 유일의 교구자원봉사단인 9교구 동화사 봉황자원봉사단의 100여 회원들은 10일, 창립 2주년 자원봉사자대회 및 자원봉사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구 전신컨설팅센터에서 저마다 빠른 손놀림으로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추운



봉황봉사단장 신성자보살

이웃에 대한 봉사 좋은 수행
간병봉사등 활동 폭 넓힐 계획
"법당에서 불경을 독송하거나 참선, 108배 정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개인적 친밀감으로 연대 효율적 운영

동화사 적극 지원 활동영역 점점 확대
백진 부분이 없나 꼼꼼히 살피고 다녔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의 전폭적인 지원이래 봉황자원봉사단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번 자원봉사자대회는 그간의 봉사단 활동이 지역 불교계 내에서 상당부분 인정받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특

이 임기 2년의 새 단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신성자(49·불명 마니주)보살은 봉황자원봉사단이 지역불교계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단장은 봉황봉사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단체로 변모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간병봉사 등과 같은 전문봉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적에 따라

각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봉사 경험도 나누고 중복된 봉사활동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했다. 이제는 참여 단체가 늘어나 대구시 및 인근 5개 군에 걸친 100여 사찰 소속 지회에 1천여 회원이 참여하는 큰 조직이

도 그 폭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다. 신 단장은 "봉사단체에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하거나 자신이 다니는 사찰의 법당을 청소하고, 계단을 쓸고 닦는 일도 봉사 활동의 한 부분"이라며 "자원봉사라고 해서 거창한 활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원 스님
불보살의 원력으로 이승과 저승을 명확히 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죽은 영혼을 환생케 하므로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영험사례

- 20년전 낙태영혼접신 지금까지 함께한 시연 (46세 정보살) 11일
- 6살때 죽은 언니가 동생에게 접신되어 고통받은 시연 (41세 김보살) 12일
- 실제로 일어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영험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문춘복 (51·이동연 서리) 15년전 죽은 삼촌이 접신이 되어 간세포 90% 소멸. 현재 정상인이 되어 직장 생활 하고 있음. (2002년 6월)

정점숙 (46·고령동) 그의 남편은 26년 전 죽은 어머니가 접신되어 폭주를 자주 하고 그런 날이면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는 등 고동을 받던 중 이젠 정상인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2002년 8월)

해원 스님

"본래 간 기능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늘 쉽게 피로해서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고 가장으로써 생활하려고 힘겨워져 정말 막막하네요. 스님을 뵈기 전에 약 1주일간을 전혀 음식을 못 먹어 지경이 됐어요.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었죠. 이왕 이렇게 죽게 되는 거 한번 맡겨나 보자는 심정으로 스님을 찾았었는데... 지금요?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지."

"남편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되는 일이 없었고요. 저와 결혼해서도 물론 마냥가지 않았. 뿐만 아니라 폭주를 하면 밤새 소리를 계속하고 밤잠을 못 이웠어요. 그러다 보니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많이 끊어지고 몸도 쇠약해져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해원사에서 불보살님의 원력을 받은 이후로 불면증이 없어진 것은 물론 주사까지 없애져 새사람과 사는 기분이예요."

해원 스님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 18일 지장재일

문의: 031) 336-3734, 336-3735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 초빙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 1년 교과목 |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 무진강스님(본대학장) · 정병호(동국대교수) · 김성현(동국대교수) · 김성영(승가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희옥(동국대교수) · 황윤식(동국대교수) · 권만준(동국대교수) · 박종(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
| 2년 교과목 |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 압도스님(전교원장) · 권기중(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 윤영수(문화재단위원장) · 김로기(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성(금강신원이사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원서교부·접수 | 전형방법 | 강의일시 및 장소 | 비고 | | | |
|---|----------------|----------------|--------------|---------------------|-----------------------------------|--|-----------------|--|----------------------------|
| ·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주간반·평신반) (30명) (50명) (30명) | · 불교미술학과 (30명) | · 불교유리학과 (30명) | · 한문학과 (50명) | · 불교를 적극 신학하고자 하는 자 |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입합판사진 3매 | 2002년 12월 15일 ~ 2003년 2월 3일 입학금 200,000원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미של반)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우리층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한문반) | ·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3년 2월 8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한문학과·불교미술학과·우리층학과 : 2003년 3월 5일, 6일

5. 원서교부처
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원)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원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원연합회 교포사 고시용 거쳐 연합회 교포사 자격용 취득한다(불교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